

샤이니 종현, 레지던스에서 쓰러진채 발견… 병원에 옮겼지만 끝내 숨져 ▶13면

인기그룹 샤이니 종현(김종현·27)이 18일 오후 6시10분쯤 서울 청담동의 한 레지던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종현은 갈탄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피워놓고 있었다. 앞서 이날 오후 4시42분쯤 누나가 '동생이 자살하는 것 같다'며 신고했고, 경찰은 위 치추적을 통해 종현의 소재를 파악했지만 너무 늦게 발견되고 말았다. 경찰은 종현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주성

류현진의 겨울은 안녕할까?

트레이드 후보서 선발 잔류로
美 언론 열흘만에 정반대 예측

美 언론 “류현진, 선발진으로 남을 것”
선발 경쟁자 마에다 겐타는 볼펜 전망
다저스 4대1 파격 트레이드 호재 불구
스토브리그 이제 시작…류 거취 주목

LA 다저스 류현진(30)은 2017시즌 보람 듯 재기에 성공했다. 길고도 험난했던 재활의 터널을 지나 이룬 성과라 더욱 값졌다. 25경기에 등판해 5승9패1세이브, 방어율 3.77을 올렸다. 건강했던 시절(2013~2014년)만큼의 성적은 아니지만, 2018시즌 이후를 기대케 하기에 충분했다.

18일(한국시간) 미국 야후스포츠는 ‘다저스가 류현진을 포함해 클레이튼 커쇼, 리치 힐, 알렉스 우드로 선발진을 꾸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2017시즌 후반기 내내 류현진과 선발진 잔류 경쟁을 펼쳤던 일본인 투수 마에

다 겐타에 대해선 볼펜 합류를 내다봤다. 전날 전격적으로 단행된 다저스와 애틀랜타의 4대1 트레이드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면서 내놓은 예측의 일환이다. 내년 시즌 종료 후 프리에이전트(FA)가 되는 거포 외야수 브라이스 하퍼(워싱턴)를 영입하기 위한 사전포석으로 다저스가 고액연봉자인 1루수 아드리안 곤잘레스, 좌완투수 스콧 카즈미어, 우완투수 브랜든 매카시를 내보낸 만큼 마운드 재편도 불가피했었다는 근거에서다.

볼과 열흘 전만 해도 류현진의 신분에 대해선 다른 전망이 나왔다. 9일 MLB닷컴은 이를 뒤 개막할 메이저리그 윈터미팅을 다루면서 곤잘레스, 카즈미어 등과 함께 류현진을 트레이드 후보로 분류했다. 기사를 작성한 켄 거닉 기자는 곤잘레스와 카즈미어의 경우 높은 몸값과 부상 전력이 걸림돌이라 오히려 류현진, 매카시 등의 트레이드 가능성을 좀더 높게 점쳤다. 윈터미팅이 끝나자마자 트레이드 예상은 현실이 됐다. 다만 결과는 약간 어긋났다. 류현진은 남고 곤잘레스, 카즈미어, 매카시

는 애틀랜타로 떠났다.

류현진은 2017시즌 도중에도 이런저런 트레이드 루머에 휩싸인 바 있다. 선발진이 넘쳐나도 우완 에이스는 부족하고, 볼펜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었던 다저스 마운드의 사정 때문에 불거진 소문들이었다. 한국 팬들 입장에서야 다소 섭섭한 얘기였지만, 역설적으로 돌아보면 류현진의 가치가 적지 않다는 방증이었음도 사실이다. 건강한 류현진은 매력적인 투수라는 평가를 해설할 수 있었다.

스토브리그는 이제 막 시작됐고, 겨울은 여전히 길다. 열흘 만에 상반된 현저 매체의 보도가 이어졌듯, 앞으로도 류현진의 신분에 대해선 얼마든지 다른 전망이 나올 수 있다. 또 다저스가 남은 겨울을 이번 4대1 트레이드 한 건만으로 흘려보낼지도 불투명하다. 이런저런 루머를 달고 실력으로 선발 한 자리를 지켜냈던 것처럼, 내년이면 다저스와 계약이 끝나는 류현진으로서 향후 예정된 스프링캠프와 시범경기 등에서 묵묵히 자기 몫만 해내면 된다.

정재우 전문기자 jace@donga.com

‘코리안 몬스터’의 2018년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LA 다저스 류현진의 거취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다저스가 최근 팀 전력 개편을 위해 파격적인 트레이드를 진행하면서 계약이 1년 밖에 남지 않은 류현진의 미래도 시시각각 예측이 변하고 있다.

스포츠동아 DB

KBL 첫 은퇴 기부 투어
김주성의 아름다운 이별

(DB)

새해부터 9개 구단 원정 돌며 기부행사
“마지막 시즌, 벤치에만 있어도 행복해요”

원주 DB의 장신 포워드 김주성(38·205cm)이 ‘2017~2018 정관장 프로농구’를 마지막으로 현역 은퇴를 결정했다. DB는 “2018년 1월1일부터 김주성의 은퇴 시즌 행사를 진행한다”고 18일 공식 발표했다.

DB는 앞으로 팀 유니폼 상의 왼쪽에 김주성의 등번호(32)와 이름을 새겨 넣는다. 또 홈구장 원주종합체육관 코트 3점 라인 안쪽에 김주성의 등번호를 새겨놓고 남은 시즌 경기를 진행할 계획이다. 선수생활 동안 금메달 연금기부를 비롯해 드림플러스 캠페인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해온 김주성은 나눔의 은퇴 투어를 진행할 예정이다.

남자프로농구선수로는 첫 은퇴 투어다. 평소 모범적인 선수생활을 해온 그답게 은퇴 투어를 하면서도 기부를 선택했다.

김주성은 한정판(32개)으로 제작된 유니폼을 상대하는 9개 구단의 원정 최종전 때 팬 응모 행사의 기념품으로 내놓는다. 추첨 팬 응모 행사를 통해 마련된 세상에 32개 밖에 없는 희귀 유니폼의 판매 수익금은 KBL 10구단과 김주성이 공동으로 대한장애인농구협회에 기부할 계획이다.

김주성은 “이번 시즌에 들어가며 구단과 은퇴 여부를 놓고 계속 논의를 해왔다. 시즌이 진행 중이지만 결정을 내리고 발표까지 하니 시원섭섭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은퇴 투어라는 말은 너무 거창하다. 프로야구 이승엽처럼 대단한 선수에게나 어울리는 단어다. 그래서 은퇴투어라는 말 대신 기부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시즌을 치르고 있는 김주성은 즐거운 마음으로 코트에 서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후배들에게 끌려가는 시즌이다. 우리 선수들이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 나도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벤치에 있어도, 코트에 있어도 너무 즐겁고 재미있다”며 웃었다.

김주성은 “나 뿐 아니라 우리 팀 경기를 보는 분들이 다 재미있다고 한다. 경기를 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좋게 봐주신다. 그런 부분에서 나도 후배들을 보며 배우는 게 있다”면서 팀 동료들을 무한 칭찬했다.

김주성은 “최근 선수들이 많이 힘들어한다. 나도 짧은 시간을 뛰지만 체력적으로 약간은 버거움을 느낀다. 후배들과 함께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잘 추스려 보겠다. 이를 통해 팬들에게 더 많은 즐거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DB 김주성의 영광스런 발자취 (2017년 12월18일 현재)

부문	통산기록(순위)	수상내역	
출전경기	711경기(3위)	정규리그 MVP	2회
득점	10124점(2위)	플레이오프 MVP	2회
리바운드	4366개(2위)	신인선수상	1회
블록슛	1028개(1위)	베스트5	8회
		수비5걸	5회

사진:정현민, 김민규

제11회 한국 창업경영인 대상 중소기업청장상 수상/경향신문 상반기 히트상품 선정

매출성장아이템
시설투자없이 메뉴추가만으로 매출두배

취급점모집
185만원

10~20만원 매출부진에서
방가네 메뉴 취급점으로 변경 70~80만원 대박행진
경기악화로 인한 업종변경의 두려움을
취급점 2~3개월 운영,
방가네 전문매장으로 업종변경후 대박행진중!

지원품목

- 홍보판촉물-신메뉴 출시 물품 배너(1800size:양면1개), 현수막 실내, 외부(2장)
- 그릇류(홀용)-국밥용 푹배기(탕)20EA, 불고기용 푹배기5EA, 국밥용 푹배기 받침대20EA
- 초도물량-가마솥 일큰 소고기 국밥 40EA(650g), 가마솥 소갈비 시래기국밥 30EA(650g)
가마솥 맑은 소고기 무국 20EA(650g), 소불고기 10EA(300g)

15년 장수 외식 프랜차이즈 전문기업

어머니의 정성과 손맛을 그대로

매장형(신규창업, 업종변경)

창업비용
380만원

한시적 150만원 상당 용보, 행사지원!!

대포항식

가마솥 일큰 소고기국밥, 가마솥 갈비국밥
가마솥 맑은 소고기국밥, 소 불고기
소 내장탕, 떡 해장국

요리만능전문

소고기 수육(소불살), 소고기 모듬수육(소불살+도가니)
소곱창전골, 소불고기 버섯전골, 뼈다귀전골
수제직화무뽕닭발, 오독오독 오돌뼈

전통 가마솥 수제 소고기 국밥, 수육 창업 유형?

신규창업 (66㎡~330㎡ / 20평~100평) : 국밥 창업을 원하시는 분
업종변경 : 매출 하락으로 인해 간략 교체만으로 업종 변경 운영하고 싶으신 분

창업 및 업종변경, 취급점문의

02)494-5057